

자율주행 트럭 고속도 달린다... 무인 운송 시대 '개막'

6월부터 중부고속도 서울~진천 112km 택배 물류 수송 시험운전자 일단 탑승... 내년부터 완전 무인체제 전환 연내 전주·강릉·대구 제주 등서도 자율주행 서비스 선배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된다.

국도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운전자 장거리 운전 부담이 줄고 물류 효율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허가는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만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 공고를 내고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주행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서류 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 평가를 한 결과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렉스가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기업이다.

라이드플렉스는 올해 6월부터 고속도로 시험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미들마일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험운행지구는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에서부터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까지 112km의 장거리 노선이며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시험운행지구를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센 25톤 트럭 1대가 90km/h의 속도로 주행한다.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한다. 라이드플렉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에도 화물 운송 서비스를



자율주행트럭의 완전 무인화 주행 실증 모습

자율주행트럭 서비스 개요 6월부터 본격 운행 시작

운영 주체	라이드플렉스
운영 구간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 진천 메가허브터미널
운영 거리	약 112km 장거리 노선
최고 속도	시속 90km
서비스 형태	유상 화물운송(택배 운송)
운영 방식	시험운전자 탑승
단계별 발전	1단계: 운전석 탑승 → 2단계: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

사진:라이드플렉스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물류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이 협력에 나섰고 다른 물류기업들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단

계)로 달리다가 내년부터는 조수석에 탑승(2단계)한 뒤 완전 무인화(3단계)로 바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교통취약지역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여객 분야 실증을 확대했다. 동시에 화물 운송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험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화물 분야가 여객보다 먼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중심 반복 노선이 많고 심야 운행이 가능해 기술 적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LS, 초고압 케이블 인증 美 전력망 진출 발판 마련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미국 전력망 프로젝트 참여에 필요한 초고압 케이블 인증을 획득했다.

LS에코에너지는 16일 LS-VINA가 글로벌 공인 시험기관 KEMA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케이블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EMA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전력에너지 분야 인증기관이다.

이번 인증은 미국 전력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규정(CS9)을 충족해 획득했다. 북미 시장에서는 초고압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현지 제조사가 제한적이어서 인증을 확보한 글로벌 공급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북미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로 송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2027년까지 약 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초고압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국내 전선 업계 평균(3~4%)을 웃도는 약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6년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인증은 북미 시장까지 대응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맞춰 시장 공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skyedaily.com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 전경. LS에코에너지

중동 변수에도 금융 대전환... 98조 공급 카드

금융당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기업 부담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돌게 하는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은행과 보험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전략산업·인프라·수출 현장·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과 중동 상황에 대한 금융권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이여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 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 부담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중동발 충격이 금융시장 위축과



이여원(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실물경제 둔화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전후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 대전환, 전략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74조5000억 원, 보험업권 24조2000억 원 등 최대 98조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를 사실상 ‘정책 추경’ 성격으로 보는 이유다.

당국은 은행권에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산업, 수출 현장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했고, 보험업권에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 사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를 손질해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여력을 키우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이 최대 74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벤처투자·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넣을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때 비상장주식 등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특례를 신설하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49%에서 35%로 경감한다. 도로·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한정됐던 특

례 범위도 신재생에너지와 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까지 넓힌다.

보험권 세부 개선안에는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보증분 무위험 분류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위험액 측정방식 합리화도 담겼다. 반면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은행권 수준에 맞춰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생산적 분야 지원을 넓히는 대신 부동산 관련 완화는 줄여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런 개선을 통해 보험업권에서 최대 24조 2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은 이미 중동 상황에 대응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은행권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중동 관련 수출입 기업, 전후방 협력사를 대상으로 4월 1주 기준 약 5조8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고, 약 7조2000억 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원금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